DS INVESTMENT & SECURITIES

Sector Comment

[반도체]

관세 폭풍 속 Silver-lining 찾기

이수림 반도체 02-709-2661 surim.lee@ds-sec.co.kr **김진형** 연구원 02-709-2664 jh.kim@ds-sec.co.kr

2025.04.07

반도체 직접 관세는 피했지만 최종 제품인 IT 기기는 관세 적용

4월 2일(현지시간) 관세 발표에서 반도체는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최종 제품인 IT 기기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지 않았다. (*중국산 34%, 대만산 32%, 한국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수입품 전반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 중국(총 54%), 인도(총 27%), 베트남(총 46%), 멕시코 등과 같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기기 조립이 대부분 이뤄짐을 감안하면 결국 IT 기기 수요 측면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T 기기에 대한 높은 관세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간재인 메모리 반도체는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가가 형성된다. 관세로 인한 IT 기기 수요 감소 시 가격 하락 압박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향후 특정 칩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IT 기기에 대한 높은 관세는 중국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

관세 부담으로 인해 IT 기기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 감소로 인한 제조업 침체는 결과적으로 내수 소비심리 위축을 야기할 것이다. 출하량 기준 글로벌 1위 스마트폰 소비국인 중국은 내수 시장도 가격 민감도가 높아 전반적인 소비 심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역시 IT 기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전자제품(스마트폰, PC, 데이터센터 장비 등)은 작년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수입 품목으로 약 4,86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다. 다만 미국은 소비여력이 높고 서버 수요의 비중이 더 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비용 증가로 AI Capex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

AI 하드웨어 및 IT 기기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비용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비용 증가는 CSP의 AI Capex 투자 지연 및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영향 범위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특히 데이터센터 장비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빅테크의 AI Capex 축소 시 AI 하드웨어 밸류체인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4월 3일 Bloomberg 보도로 MSFT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보류 및 취소 이슈가 재점화됐다. 이전에는 오픈AI와의 관계 변화 및 오픈소스 AI의 점유율 확대로 인한 MSFT의 전략 변화로 판단했으나 전반적인 투자전략 재조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성능만이 살길,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

SK하이닉스는 HBM의 이익 기여도가 2025년 기준 45% 이상으로 전망되며 서버 DRAM과 eSSD의 판매비중 역시 점차 늘려가고 있다. HBM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다. 서버용 DDR5 역시 수요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고성능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지속되며 매출 감소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기준 미국향 매출 비중이 63%,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29% 미만으로 추정된다. 중국향 매출 비중은 SK하이닉스 23%, 삼성전자 31%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국 IT 기기 수요에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 또한 일반 IT 기기에 주로 탑재되는 범용 DRAM, NAND 매출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큰 삼성전자가 관세로 인한 수요 감소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표1 2025/04/02 미 정부 상호관세 발표 내용

국가	반도체	IT 완제품 (스마트폰, PC, 서버 등)	비고
중국	기본관세 20%	54% (기본관세 20% + 상호관세 34%)	미국산 완제품에 보복성 부과
한국	기본관세 10%	35% (기본관세 10% + 상호관세 25%)	반도체는 상호관세 제외 품목 지정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관세로 인한 IT 기기(스마트폰, PC, 서버 등) 수요 영향 분석

비교 항목	중국	미국
소비시장 규모 (출하량)	스마트폰 수요 1위	PC 수요 1위
제품의 가격 민감도	높음	낮음
내수 중심 제품군	중저가 스마트폰 (샤오미, 화웨이)	서버, 프리미엄 스마트폰
관세에 따른 영향	고관세로 인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약화	관세로 인한 기기 가격 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
정책적 대응 가능성	보조금, 자국 생산 장려, 내수 소비 촉진	일부는 소비 축소로 직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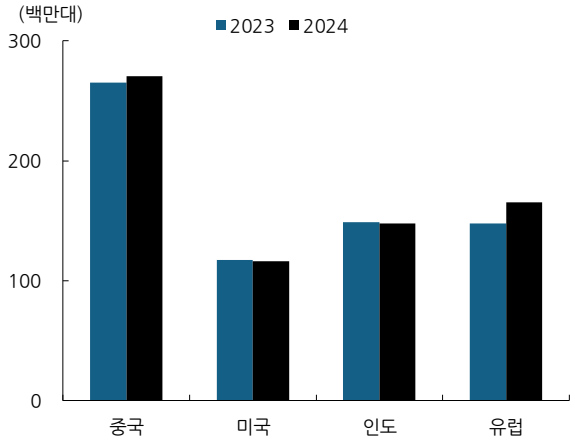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국내 메모리 업체 지역별 매출 현황

항목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S 부문
미국 매출 비중	63%	29% 미만 추정
중국 매출 비중	23%	31% 이상 추정
직접 관세 영향	없음	없음
전방 수요처	주로 서버·데이터센터 중심	모바일, 서버 등 다변화
중국 수요 의존도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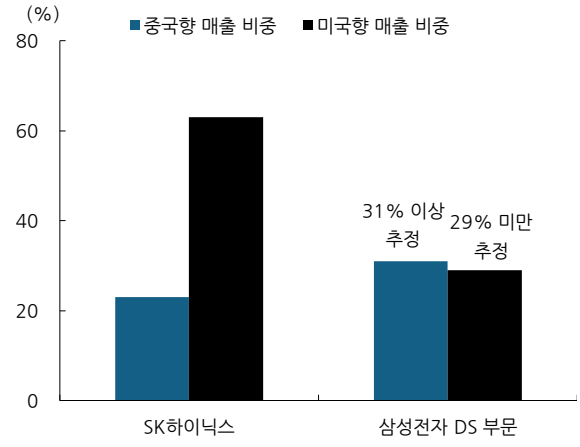
자료: DART,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매출 비중은 2024년 기준

그림1 국가별 스마트폰 출하량 비교



자료: 업계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 메모리 업체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 DART,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